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후원미사는 17일, 11월 후원미사는 21일, 12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6년 8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 수입 총액 | 19,931,869 | 전월이월금 | 932,139 |
|-------|------------|-------|-----------|
| 지 로 | 3,030,800 | 우리은행 | 6,214,430 |
| 국민은행 | 4,676,000 | 하나은행 | 1,116,000 |
| 조흥은행 | 115,000 | 신한은행 | 1,270,000 |
| 외환은행 | 372,500 | 제일은행 | 265,000 |
| 농 협 | 1,300,000 | 기업은행 | 235,000 |
| 우 체 국 | 65,000 | 저정기탁 | 340,000 |
| | | 교구보조 | - |

지출내역

| 항목 | 지출 | 세부내역 | |
|----------|------------|------------------------------------|-----------------|
| 베들레헴어린이집 | 7,000,000 |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 |
| 베다니아의 집 | -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 |
| 벧들의 집 | 925,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 |
| 마고네공부방 | 600,000 | 간식비, 교육비 등 | |
| 몽골공동체 | 200,000 | 제전비 | |
| 남미공동체 | 300,000 | 제전비 | |
| 소 계 | 9,025,000 | | |
| 지원금 | 노동사목위원회 | 5,070,000 | 장기수선총당금 등 |
| 운영비 | 이주사목위원회 | 4,785,000 | 운영비 등 |
| 저정기탁금 | 저정기탁 | 340,000 |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
| 지출 총액 | 19,220,000 | 잔액(이월금) | 711,869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6. 9 / 제3호

펴낸날 2016. 9. 19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2007년 겨울의 어느 주일 저녁, 한 언론사 기자들이 본당에 찾아왔습니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는데, 선거와 관련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인터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교우분들을 붙잡고 질문을 하던 그 기자들이 이번엔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던 터라 저는 피하지 않고 그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질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입니까? 경제 능력입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기자라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들고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도덕성이란 다른 무엇과 비교할 바가 아닌,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도덕성이라는 인격 기반을 바탕으로, 그 위에 사람들 저마다의 다양한 능력을 탐처럼 쌓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한다면, "대통령 후보에게 있어서 '국민들을 잘 아우르고 이끄는 능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이 되어야 했겠지요.

당시 그 기자들의 질문은 우리 사회의 가치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경제, 또는 '경제적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느새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려, 이제 '도덕'이나 '윤리' 등은 사람들 사는데 거주장스럽고 불필요한 것들로 여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요즘, 며칠 전 뉴스에서도 여전히 "경제 살리기"라는 입에 발린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자기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가 경제에 큰 힘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들의 도덕성이 형편없기 때문에 서민들만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경제와 '효율성만 먼저 따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노동사목위원회'에 온지 6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10년은 넘게 몸담아 일하고 싶었는데, 7년도 채 못 채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사목을 할 때나,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을 할 때나 우리 교우 분들의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사목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신 분들, 매달 저희 회관으로 봉사활동을 나와서 직접 도와주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고마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곳의 사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교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 교우 분들께서도 '경제'나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계셨다면, 과연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 매번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교우 분들께서는 '도덕', '윤리' 등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듯 남을 돕는 일에 언제나 기쁘게 나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우 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과 몸으로 애쓰며 하시는 그 선행들은 세상 방식의 '효율'을 넘어서서, 훨씬 커다란 하늘나라 방식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6년 9개월 동안, 여러 교우 분들께서 맺어 주시는 그 좋은 '효과'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잘 생활하다 떠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하느님의 은총이 늘 가득히 내리고 머물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 시메온 신부

공동체 소식



베다니아의 집 소식*

담당 수녀인 레온시아 수녀 인솔로 모자가정(3가정, 총 6명)과 함께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이거나 요양을 하고 있는 가정으로 외출이나 나들이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여 쉼터에서 벗어나 더 위도 식하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상상나라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수녀님은 그동안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쉼터로 돌아오기 아쉬워하는 이들을 위해 어린이대공원 동물원도 들렀습니다. 세네갈 국적의 어머니는 난생처음 코끼리와 호랑이 등을 봤다며 아이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박웃음 짓는 뿌듯한 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미공동체 캠프*

남미공동체는 다문화가족, 난민가족 어린이들과 함께(위원장 신부님과 부위원장 신부님, 공동체 담당 수녀님 포함 총 27명) 8월 16 ~ 17일 대성리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물놀이와 축구, 캠프파이어 등 자연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오는 길에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둘러 야외세트장, 스튜디오, 녹음실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물들을 견학하고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잘 다녀왔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성곽나들이



▲ 박물관견학

서울대교구 사제인사발령 소식*

서울대교구 사제인사발령이 8월 18일에 단행되었습니다.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장경민(시메온) 신부님께서 인사발령으로 노동사목위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위원장인 정수용(이나시오) 신부님께서 위원장과 회관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6년 9개월이란 시간을 한결같이 위원회를 위해 수고 해주신 장경민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정수용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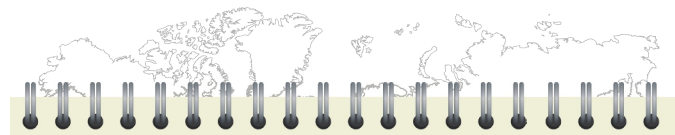
문화알림

ABOUT Mongolia 몽골*



- 수도 / 울란바토르
- 종교 / 하라마교 90%, 이슬람교 5%
- 기후 /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 인구 / 약 299만명(세계 137위)
- 기념일

- 1월 새해 (1일)
- 2월 설날 (음력1월1일)¹⁾
- 3월 여성의 날 (8일)²⁾
- 6월 어린이날 (1일)
- 7월 나담축제 (11일)³⁾
- 11월 국가선포일 (26일)⁴⁾



1) 설날 (음력 1월 1일)

몽골에서는 설날을 "차강사르" 라고 부른다. 최대 명절로 삼아 3일간 쉬며 고향을 방문하고 손님을 맞이하여 미리 준비한 명절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습은 한국의 설날과 매우 비슷하다. "차강사르"는 "하양달"이라는 뜻이며 몽골에서는 흰색을 평화, 순수 등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색으로 여겨 이날을 몽골 최대의 길일이라고 한다.

2) 여성의 날 (3월 8일)

UN이 정한 여성의 날로 몽골 정부도 남녀평등을 중시하여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 날만큼은 모든 여성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여성의 뜻이 성취 되도록 격려 해 주고 있다. 여성들의 일을 도와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집에서는 아버지가 요리를 만들거나 어린이들이 청소를 해서 이 날 하루는 여성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3) 나담축제 (7월 11일)

나담은 몽골 혁명기념일인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매년 개최되는 몽골의 대표적인 민속 축제이자 스포츠 축제이다. 축제의 정식 명칭은 '남자들의 세 가지 경기'라는 뜻의 '에린 고르봉 나담'(эрийнгуу рваннаадам; Eriin Gurvan Naadam)으로, 몽골 씨름, 말타기, 활쏘기 등 3가지 경기의 중시를 이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명칭은 비록 '남자들의 경기'지만, 나담은 여자들은 물론 아이부터 노인까지 폭넓게 참가하는 몽골인 모두의 축제이다.

4) 국가선포일 (11월 26일)

1924년 11월 26일은 러시아식 헌법을 채택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국가선포일이다. 몽골은 러시아와 3480km, 중국과 4673km에 달하는 장대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 몽골은 한때 중국을 지배했지만 원나라가 멸망한 이래 수백 년을 중국에 눌러 살다가 1924년 11월26일 비로소 몽골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이후 소련의 영향 아래 있다가 동서냉전이 풀리자 실질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몽골공동체*

국가 간의 외교관계가 더 넓혀짐에 따라 2004년 한국과 몽골의 노동 M.O.U 체결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는 몽골인들이 점점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한국에서 취업중인 몽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2004년부터 몽골 선교사를 초청하여 이주노동자상담실에서 몽골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결혼이주여성 이 근무하며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와 몽골인에 대한 공감으로 몽골노동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주사목위원회 몽골공동체의 사목방향은,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이 건강하게 일하고, 인권을 보호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도록 여러 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 국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몽골 공동체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11시 노동사목회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유학생,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8월 28일에 대전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마친 앵호 부제님께서 몽골 가톨릭교회 본토인으로서 최초로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신자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당수가 냉담 교우인 몽골 교회 공동체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